

고대 그리스 반지성주의 연구

김현*

초록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반지성주의는 지성에서 벗어나고 합리성에 반대하는 부정적 태도만 아니라, 지성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지성인의 독선과 이기적 위선을 경계하고 다양한 의견의 건전한 소통을 보장하려는 긍정적 노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고대 그리스 서사시 전통은 인간적 경험과 지식보다는 신적 영감과 직관을 더 믿을 만한 인식론적 근거로 여긴 것 같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정은 소수 엘리트 집단의 지성적 권위보다는 일반 대중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이 더 믿을만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절대적·보편적 지식보다는 상황에 따른 시의적절한 의견으로 대중을 설득하는 수사학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그리스 희극은 일부 지성인들의 독선적 권위와 위선과 무능력을 고발했다. 고대 그리스의 이른바 ‘반지성주의’는 부정적 평가만으로는 규정될 수 없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으며 아테네 고유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주제어 반지성주의, 지성, 철학, 역사, 수사학,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 고전기 아테네

1. 들어가는 말

지난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와 많은 다른 나라들이 겪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지적했다.¹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견해를 허용하며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 그러나 엇갈리는 견해들이 화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비화할 때,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위기에 봉착한다. 따라서 견해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화합을 이끌어 내야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원인이며, 지성주의가 힘을 가지고 반지성주의를 물리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결론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가 정확히 무엇이나에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그 정의가 다음과 같이 명시된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1 이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2022.5.10.)에서 인용.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469>

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지성주의는 적어도 3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진실의 왜곡’, 둘째, ‘개인적 취향과 욕망에 따른 사실만의 선택’, 셋째,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 첫 번째 요소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주장하는 위선적이고 허위적 태도이며, 진실을 찾지 않는 무지의 횡포로 연결이 된다. 두 번째 요소는 사실에 입각하되, 이해타산에 따라 선택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의 엄연한 존재를 외면하는 편향적인 태도와 관련된다. 세 번째 요소는 사실과 진리, 지성과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수적 우위로 소수의 의견을 억누르는 집단 폭력성을 함축한다. 그렇다면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에 해롭다는 것은 자명하다. 거짓과 편향적 진리가 판을 치고, 수적 우위에 의한 폭력이 진실을 억압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오직 건전한 지성주의와 합리주의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소수 전문적 엘리트가 지성적 권위로 강압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다수 대중이 건전한 상식으로 비판적 도전을 하는 맥락에서라면, ‘반지성주의’와 ‘지성주의’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판이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거짓을 진리인 양 내세우며 진실을 왜곡하는 양상이 소수 지적 엘리트의 일그러진 욕망에서 나온다면, 그 ‘지성주의적’ 권위에 굴복할 수는 없다. 한편,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편향된 시각으로 진실의 일부는 보지만 전체적 맥락을 통찰하지 못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어떨까? 소수의 건전한 의견에 대한 다수의 폭력적 억압의 진원지가 엘리트 전문가 집단이며, 그들이 전문성의 권위를 악용하여 대중을 호도하여 수적 우위를 확보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곡에 대한 비판적 태도, 즉 지성적 엘리트 집단의 권위적 독선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반지성주의’라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 이렇듯 반지성주의가 단순히 지성에 대한 반대나 진실을 왜곡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대중적 상식으로 불순한 지성인 집단을 비판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다. 사실 이런 뉴앙스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일부 읽을 수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난제를 해결할 힘이 소수 지성적 엘리트 집단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해결의 힘을 다수 국민들과 세계 시민에게서 찾는다. 이들은 보편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지성인들 못지않게 지혜롭게 판단하며, 용기 있게 실천해 나갈 힘이 있다. 이들이 공적 권력이나 지성적 권위를 갖춘 엘리트 집단이 이기적이며 위선적 행동으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지성인들에 반대하며 그들에 의해 사악한 명분으로 악용되는 ‘지성’에 대해 반기를 든다. 그때 다수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은 건전한 상식에 기반을 둔 ‘반지성주의’의 실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는 단순하지 않고 맥락에 따라 역설적인 측면도 있다. 이 글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대 그리스 반지성주의를 검토하려고 한다. 해외에서는 몇몇 관련 연구가 검색되지만² 국내에선 아직 고대 그리스 반지성주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

— www.kci.go.kr
2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올딩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G. G. Olding (2002), "Anti-

은 상태다.³ 고대 그리스에는 ‘반지성주의’에 대응하는 정확한 개념을 찾기 어렵고, 지성에 해당하는 말도 분명하지는 않다. 따라서 지성과 반지성의 개념으로 고대 그리스를 비춰 보는 것은 자칫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에 버금가는 양상은 보이며, 이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고전의 가치가 고전이 태생적 환경 속에서 발휘한 힘으로 평가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보편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면, 인류 최초로 민주정을 시행한 고전기 아테네를 비롯해서 고대 그리스 문명사의 지평 위에서 반지성주의를 탐구하는 것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유효할 것이다.

intellectualism in Classical Athens,” University of Adelaide, South Australia. 이 논문은 시대를 고전기 아테네로 제한하고 비극과 희극, 몇몇 주요 연설문 등에 나타난 반지성주의를 다룬다. 나는 이 논문의 논지를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이 논문이 다루지 않고 있는 이소크라테스의 반지성주의를 비롯해서 고전기 아테네 이전의 서사시 전통을 검토할 것이다.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에 나타난 반지성주의를 다룬 Green의 논문도 참조할 만하다[P. Green (1979), “Strepsiadēs, Socrates and the Abuses of Intellectualism,”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20(1), pp. 15–25].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을 비롯해서 고전기 아테네의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는 반지성주의적 논증에 관한 연구는 H. Tarrant (2008), “The Dramatic Background of the Arguments with Callicles, Euripides’ Antiope, and an Athenian Anti-Intellectual Argument,” *Journal of the Australian Society for Classical Studies* 42, pp. 20–39 참조.

- 3 한편,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반지성주의나 다른 지역에서의 반지성주의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경하(2021),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인문논총』 제78권 제4호, pp. 209–235; 강준만(2019), 「왜 대중은 반지성주의에 매료되는가?: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반지성주의」, 『정치·정보연구』 제22권 1호, pp. 27–62; 김대중(2022), 「계란머리에서 트럼피즘까지: 미국의 반지성주의 연구」, 『인문학연구』 제63호, pp. 97–117; 남상욱(2019), 「현대 일본의 ‘반지성주의’ 담론 분석」, 『일본학보』 제119호, pp. 93–110; 박종우(2019), 「중국의 반지성주의 맥락과 시진핑 정권」, 『중국지역연구』 제6권 제3호, pp. 135–169; 한상원(2018), 「아도르노와 반지성주의에 관한 성찰: 민주주의와 지성의 상관성 물음」, 『철학』 제135집, pp. 23–46.

2. 반지성주의란 무엇인가?

반지성주의는 “지성에 어긋나는 것, 반(反)하는,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⁴ 반면 지성주의는 판단과 인식에 지성이 가장 중요하며 유익하다는 입장이며, 나아가 사회적 결정과 실행에서 지성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로 이어진다. 모든 화이트에 따르면⁵, 반지성주의자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지성인들의 지성적 절차의 우월성을 반대하며 그 결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다. 지성의 유용성과 우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감성과 상상력, 직관을 강조하며, 대중의 통념이나 상식이 지성인의 전문적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⁶ 그래서 논리적 생각보다는 직관적 느낌을, 관조보다는 행동을, 전통과 질서보다는 개별적 경험을 더 중시한다.⁷ 지성의 탁월함과 우월성, 학문과 과학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길 거부하며⁸ 지성 위주의 교육, 특히 전문 지식탐구의 대학교육을 폄하한다. 지성의 역할을 일정 부분 긍정하더라도 그것을 비지성적 요소들에 대해 하위로, 또는 종속적·보조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화이트는 이들을 ‘준-경험주의자’(sub-empiricist)라고 불렀다.

모든 화이트의 두 번째 반지성주의자들은 지성 자체가 아니라 지성인⁹들의 무능력과 부도덕성을 겨냥한다. 실령 특정 전문가들의 지식과 기

4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49d6802dde04c7e9add42359fc2070f>(접속일: 2021.10.31.)

5 White, M. (1962), “Reflections on Anti-intellectualism,” *Daedalus* 91, pp. 464-465.

6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informatisé*, sur le site du CNRTL, <https://www.cnrtl.fr/definition/anti-intellectualisme>(접속일: 2021.10.27.)

7 C. H. Holman (1980), *A Handbook to Literature: Based on the Original Edition by William Flint Thrall and Addison Hibbard* (4th ed.), Indianapolis: Bobbs-Merrill Education Pub. p. 27.

8 *Dictionnaire Larousse*, “anti-intellectualisme,” <https://www.larousse.fr/dictionnaires/francais/anti-intellectualisme/4113>(접속일: 2022.11.12.)

9 막스 베버는 지성인을 “각별한 능력을 가지고 문화적 가치에 특별히 접근할 수 있는 사

술은 인정하더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문기술과 지식을 내세워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으니, 그들의 속셈에 속아선 안 되며 그들의 정책을 따라선 안 된다는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¹⁰ 흥미로운 것은 기득권 지성적 엘리트에 반대하는 반지성주의적 세력이 수준 높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지성인일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19 확산 문제와 그 예방에 관하여 바이러스 방역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이 반지성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힐 수 있는데, 그 비판적 세력에는 그 분야 전문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반지성주의 운동이 그야말로 반지성적이고 비지성적인 경우도 있다. 미국의 트럼프주의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에 대해 반대하고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의 파우치 소장을 해고하려는 정치적 모임을 결성하고 협박을 가하기까지 했다.¹¹ 그런데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반지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된 것은 2017년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이 되면서부터이다. 그의 선거 전략이 반지성주의적이라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높아지면서 1963년에 출간된 호프스태터의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비롯해

람, 그래서 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지배력(통제력)을 갖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는데 [Weber, M. (ed. & tr. G. Roth and C. Wittich)(1978), *Economy and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nd ed.), p. 926], 이 개념은 그리스 고전기의 지성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0 반지성주의의 음모론에 관한 연구는 안재원(2022), 「반지성주의와 음모론」, 『서양사연구』 제66집, pp. 29-57.
- 11 <서울신문> 2021년 7월 29일자 기사 “테러 위협·해고 압박 받는 파우치… ‘미 방역 잘못되고 있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30020014>. 코로나 방역에 대한 반지성주의적 태도의 중남미적 사례에 관해서는 이상현, 「포퓰리즘과 반지성주의: 라틴아메리카의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제40권 1호, pp. 69-96 참조.

서 반지성주의의 관련 서적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았다.¹² 그런데 호프스테터가 지적했듯, 미국 반지성주의의 뿌리는 청교도적 근본주의 개신교로 잇닿는다.¹³ 이미 19세기 중반에 에머슨도 “저급한 열망으로 길들여진 이 나라의 정신은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한탄했는데, 지성과 지성인, 지성주의에 대한 맹목적 불신으로 흐트러져 가는 미국 대중과 반지성주의적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¹⁴ 지금도 우리는 반지성주의적 행태를 찾을 수 있고,¹⁵ 인류 역사 어느 시기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반지성주의는 긍정적 요소를 갖기도 하며, 지성주의의 한계나 위험성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유럽에서의 반지성주의, 특히 근대 이성주의·합리주의,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낭만주의 운동으로 표출된 반지성주의를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것은 이성 중심 합리주의가 진리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인류를 발전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반동과 비판이었다. 자연스러움, 신비로움에 대한 취향, 주관성의 인식론적·존재론적 위상을 높인 것이다. 이는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저변을 확대해 나

-
- 12 리처드 호프스테터(2017), 유강은 역, 『미국의 반지성주의』, 교유서가; 모리모토 안리(2016), 강혜정 역, 『반지성주의: 미국이 낳은 열병의 정체』, 세종서적; 수전 제이코비(2020), 박광호 역, 『반지성주의 시대: 거짓에 빠진 미국, 건국기에서 트럼프까지』, 오월의 봄; 카스 무데(2021), 권은하 역,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열 가지 키워드로 읽는 21세기 극우의 현장』, 위즈덤하우스.
- 13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독교의 반지성주의에 관한 간략한 소개는 최형목(1998), 「한국교회 반지성주의의 뿌리」,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338호, pp. 4-5.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 반지성주의의 다양한 현상에 관한 연구는 정강길(2015), 「초자연주의 신앙에 대한 재고찰과 대안적인 신앙 모델 모색: 한국개신교의 반지성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제25호, pp. 69-102 참조. 한편 한국의 천도교와 관련된 반지성주의 연구는 이혜경(2022), 「근대성에 대한 대항으로서 신종교, 거기에 스며든 반지성주의」, 『인문논총』 제79권 2호, pp. 125-154 참조.
- 14 S. Jacoby(2008), “The Dumbing Of America,” *Washington Post* (2.17.)에서 재인용.
- 15 한국의 반지성주의를 다룬 최근의 국내 저서로는 이라영(2019), 『타락한 지향: 지배하는 피해자들, 우리 안의 반지성주의』, 교유서가를 꼽을 수 있다.

갔으며, 현대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까지 이어졌다. 이성 대신 '권력에의 의지' '생존에 대한 욕구' '무의식적 욕망' 등을 인간 본성에 더 중요한 것으로 주목하고, '이성의 도구성' 내지 '도구적 이성'의 개념을 내놓은 배경에는 반지성주의가 있다. 반지성주의는, 적어도 서구에서는, 헤겔의 절대정신에서 정점에 이른 근대 합리주의에 대한 새로운 사상적 대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반지성주의는 미국의 반지성주의보다는 정치적 양상을 덜 보이긴 했지만, 낭만주의 시대 이후로 여러 분야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영합주의와 연결되기도 했고, 보수나 진보 양 진영 모두의 지성인들에게 공유되곤 했다. 세계 1, 2차 대전 사이에 좌파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은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 왔던 부르주아적 엘리트가 교육과 지식, 기술, 정치를 독점하는 것을 비판하며, 대학의 교양이나 전문지식교육보다는 삶에서 우러나온 대중의 상식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또한 기성 세대의 경험보다는 젊은 세대의 자유로움과 자발성을 찬양하며 독려했다. 1968년 5월의 지성인들의 '프랑스 이론'(French Theory)과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적 상대주의는 근대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과학적·학문적 지식의 우월성에 타격을 가했다. 과학적 지식이 인식론적 절대 우위를 갖지 못하며, 다른 여러 믿음들 중 하나일 뿐임을 주장했다. 직관과 감각, 감성의 인식론적 가치를 이성·지성과 동등한, 또는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우익의 지도자들도 도덕적 관점에서 반지성주의적 태도를 취하면서, 그동안 권위를 독점하던 소수의 지성인들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경계하며 지성적 엘리트들의 비도덕적인 의도에 의심을 표했다. 난해한 언어와 이론, 체계를 현학적으로 제시하면서 일의 절차와 권력, 부를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것을 비판하며, 우익의 지도자들은 '지성적 복잡성'보다는 '대중적 단순성'을 내세웠다. 이들의 비판과 반발은 소수 엘리트 지성인의 행태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반지성주의였다. 이렇게 프랑스의 반지성주의는 자칫 독단

적인 오만으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지성주의의 위험을 경계하는 한편, 대중의 상식적인 판단의 가치를 존중했고, 지성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건전한 역할을 자처했다.

3. 고대 그리스의 반지성주의

3.1. 고대 그리스 서사시 전통의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적 경향은 그리스 고전기 이전에 주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고기 초기(기원전 8세기경)에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의 서사시는 반지성주의에 가깝다. 비록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에게 지성의 개념이 명료했던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그들의 인식이나 창작이 지성에 반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들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 자신의 지적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지 못한 것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사(Mousa)여신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지성주의보다는 반지성주의에 가깝다.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인간을 넘어서는 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신이 도와준다면 시인은 인간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으며, 그것은 진실에서 어긋남이 없다고 믿은 것이다.¹⁶ 호메로스는 시를 시작하면서 인간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 무사 여신의 도움을 청한다.¹⁷ 여신의 도움으로 시를 완성하겠다는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의 태

16 호메로스, 『일리아스』 제2권, 484-492행.

17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의 도입부에서 무사(Mousa)를 부른 뒤, 각주 16의 구절에서와 같이 제2권에서 다시 무사를 부른 것에 관한 설명에 관해서는 G. Nagy(2018) "A Re-invocation of the Muse for the Homeric Iliad," *Classical Inquiries*, http://nrs.harvard.edu/urn-3:hul.eresource:Classical_Inquiries.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시인이 무사(Mousa) 여신을 부르는 행위가 갖는 의미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는 E. Minchin (1995), "The Poet

도는 인간 지성에 대한 불신과 의혹에서 나온 것인데, 화이트는 이런 사람들을 ‘초-이성주의자’(super-rationalist)라고 불렀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무사 여신은 안다. 나는 무사 여신의 말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할 뿐이다.”라는 고백은 인간의 지성에 의존하는 것보다 신의 영감에 의존하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깝다는 반지성주의적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예언자나 제사장도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 이들은 인간 지성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역량, 예컨대 신적인 존재가 부여하는 초인간적인 영감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능력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인간적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재능이기 때문에 진리·진실에 대해 독보적이며 배타적인 권위를 갖는다. 헤시오도스는 이런 배타적 권위를 정치지도자들에게도 인정한다. 헤시오도스는 탁월한 지도자의 조건이 인간 지성에서 확보된다고 보지 않는다.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신이 내리는 은총의 선물로서의 분별력과 언어구사력이 없다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¹⁸ 플라톤의 ‘철인정치’와 비교하면, 헤시오도스는 지도자의 지성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신이 부여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더 신뢰하는 일종의 반지성주의적 지도자상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태도는 지성주의가 확립되기 이전의 반지성주의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지성주의가 확립되던 고전기에도 지속되었고, 지성과 지성주의에 대한 의심과 불신, 폄하, 반감, 혐

Appeals to His Muse: Homeric Invocations in the Context of Epic Performance,” *The Classical Journal* 91(1), pp. 25-33 참조. 한편 무사를 부르는 시인의 창작 기술과 관련해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를 분석한 연구는 W. Franke (2011), “Homer’s Musings and the Divine Muse: Epic Song as Invention and as Revelation,” *Religion & Literature* 43(1), pp. 1-28 참조.

18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79-93. 이와 관련된 헤시오도스의 수사학에 관한 연구는 J. Walker (1996), “Before the Beginnings of “Poetry” and “Rhetoric”: Hesiod on Eloquence,” *Rhetorica* 14(3), pp. 243-264; M. J. Mordine (2006), “Speaking to Kings: Hesiod’s ‘Ainoi’ and the Rhetoric of Allusion in the ‘Works and Days,’” *Classical Quarterly* 56(2), pp. 363-373 참조.

오의 형태로 새롭게 나타났다.

3.2. 그리스 고전기의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

그리스 고전기는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침략을 아테네가 마라톤 전투에서 막아내고,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2차 침략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막아낸 후부터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원정 중에 사망한 기원전 323년까지로 규정되곤 한다. 이 시기에 고대 그리스 문명, 더 나아가 로마 문명과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될 다양한 분야의 고전들의 많은 수가 탄생했다. 특히 이 시기에 철학(philosophia)이 만개했다.¹⁹ 그 이전까지 고대 그리스 사회의 전통을 지켜오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일과 낱알』 등에 그려진 대로 제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올림포스 12신 체계의 전통적인 신화(muthos)적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이성(logos)을 따라 사고하는 철학자들이 지성주의적 사유를 시도하면서 철학이 발전했다. 원자론의 데모크리토스와 그 밖의 자연철학자들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윤리 문제를 새롭게 제기했다. 이들의 철학적 활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며, 서양철학의 전통을 만들어 낸 고전들이 탄생했다. ‘뫼토스에서 로고스로’²⁰, ‘종교에서 철학으로’²¹라는 슬로건이 통하는 지성과 합리성의 시대였다.

19 하이데거는 그리스 철학은 소크라테스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계승 발전하였다고 생각한다[M. Heidegger (1956), *Was ist das: Die Philosophie?*].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전기 이전에 활동했던 탈레스(BC. 624~548)를 첫 번째 철학자로 평가한다(『형이상학』 제1권 3장 983b20).

20 W. Nestle (1940), *Vom Mythos zum Logos. Die des griechischen Denkens Selbstentfaltung Homer bis auf die von und Sokrates Sophistik*, Stuttgart.

21 F. M. Cornford (1912), *From Religion to Philosophy: A Study in the Origins of Western Speculation*, New York.

철학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록에서도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서사시가 차지하던 자리에 ‘히스토리아’(historia)가 들어선다.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한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록한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직접적인 답사와 탐구, 목격과 증언을 토대로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실증적으로 기록하려는 노력이 시인의 노래를 대체한 결과였다.²² 플라톤이 지적했듯, 시인들은 무사 여신의 영감을 받아 예언자적 선언의 방식으로 과거를 드러냈는데²³, 그들의 노래가 진실을 노래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 고조되던 터였다. 제사장들이 정치적 권위를 세속적 권력자들에게 넘겨주었듯, 크세노폰,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와 같은 역사가들은 시인들의 제사장적인 권위를 흔들면서 과거를 서술하는 지성적 방식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런 고전기는 그동안의 전통에 내재한 ‘반지성적인 요소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제거해 나갔기에 ‘지성(또는 이성, nous)의 시대’, ‘지식(epistēmē) 존중의 시대’라 부를 만하다.

22 헤로도토스가 신화를 역사 기술에 활용하면서도 탈신화화를 통해 기존 신화와 선을 그으면서 신화에서 역사로의 의식적인 이행의 태도를 보여 주었다는 연구에 관해서는 김봉철(2010), 「헤로도토스와 그리스 신화 서술: 제우스 서술을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제27권, pp. 263-295; 김봉철(2012),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술과 그리스 신화」, 『서양고대사연구』 제32권, pp. 35-70 참조. 손태창(2022), 「아마존인들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서술: 서사의 분석을 통한 서술 의도의 해석」, 『서양고대사연구』 제64권, pp. 7-40 참조. 이 주제에 관련된 포괄적인 연구는 B. E. Vandiver (1990), “Heroes in Herodotus: The Interaction of Myth and History,”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참조. 투키디데스의 탈신화적 역사서술에 관한 연구는 B. Williams (2001), “What Was Wrong with Minos? Thucydides and Historical Time,” *Representations* 74(1), pp. 1-18 참조.

23 플라톤, 『이온』, 『국가』 등. 시인의 창작의 원천에 관한 플라톤의 논쟁적 탐, 구에 관한 연구는 박규철(2012), 「시는 기술인가 신적 영감인가?: 플라톤의 『이온』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와 이온의 논전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충남대학교) 제86권, pp. 353-380; N. L. Habash (2017), “Lack of Technē and the Instability of Poetry in Plato’s *Ion*,” *Classical World* 110(4), pp. 491-521 참조. 시인이 창작과정에서 의존하는 영감에 대해 『국가』에서 플라톤이 보여 주는 반지성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연구로는 권혁성(2018), 「“영감” 개념에 따른 플라톤의 시 이해: 『국가』의 시 논의와 일치하는 그것의 비판적 입장에 관하여」, 『미학』 제84권 1호, pp. 41-91 참조.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를 찬란한 문명과 지성의 시대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평가를 시대착오적으로 과거에 적용한 모종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시대의 탁월한 지성인들이 그 시대의 이방인, 또는 이단아로서 모진 질서와 의혹과 거친 킥박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계는 ‘씨앗’(sperma)들로 구성되었으며, 씨앗은 우주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품고 있는데, 씨앗들을 움직이는 원리는 지성(nous)이라고 주장했던 아낙사고라스는²⁴ 태양이 아폴론이나 헬리오스와 같은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불타는 붉은 돌덩이에 불과하며, 달도 역시 하늘을 떠도는 흙덩이라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자칫 사형을 당할 뻔했다.²⁵ 당대 아테네의 권력자 페리클레스가 그를 정치적인 조언자로서 이오니아의 클라조메나이로 부터 초빙했던 터라, 그는 간신히 아테네를 빠져나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²⁶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테네인들이 믿는 전통적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도입하려는가 하면, 이상한 논변과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는 기묘한 대화법으로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기소되어 사형이 언도되었다.²⁷ 아낙사고라스와는 달리 그는 사형을 피하지 않고 독배를 마셨다.²⁸ 신화와 종교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문을 품고 비판을 가하면서, 아테네 젊은이들에게 지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숙고하며 행동하라고 촉구했던 것인데, 그가 비판하는 ‘비합리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는 신들에게 불경하고 전통에 불손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탄의 주범으로 보였던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계몽적 태

24 A. Macé (2011), “Une Science Athénienne de la nature. La promesse et le testament d’Anaxagore,” *Méthexis* 24, pp. 21-43.

25 J. Mansfeld, (1979), “The Chronology of Anaxagoras’ Athenian Period and the Date of His Trial,” *Mnemosyne* 32, pp. 39-69.

26 L. Woodbury (1981), “Anaxagoras and Athens,” *Poenix* 35(4), pp. 295-315.

27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보라.

28 플라톤의 『크리톤』, 『파이돈』을 보라.

도가 지성주의라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대중과 대중을 선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당대의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주류가 보인 태도는 반지성주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 고전기를 단순하게 합리주의·지성주의의 시대라고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소수의 지성인들의 새로운 모색에 대한 반발이 거셌던 반지성주의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시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아테네 민주정과 수사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3. 그리스 고전기 민주정과 수사학의 반지성주의

그리스의 민주정(Demokratia)은 기원전 508년 클레이스테네스가 시민들의 주거지를 10개의 데모스(Demos)로 나누고 정치권력(Kratia)을 배분하는 정치적 개혁을 통해 소수 귀족의 기득권을 깨뜨리고 세운 것이다. 민주정은 대중에게 정치적으로 큰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민주정에 대한 불신과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대해 아시모프가 미국의 반지성주의에 대해 했던 말을 연결시킬 수 있다. “미국에는 무지에 대한 숭배가 있고, 항상 그래 왔다. 반지성주의의 전통은 지속적인 추세였으며, 민주주의가 ‘나의 무지는 당신의 지식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잘못된 인식에 힘입어 우리의 정치·문화의 생활 속으로 침투해 왔다.”²⁹ 이 언급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정을 우민정치의 구현이라고 본 인식과 통한다. 아시모프의 말에서 대중의 ‘무지’ 대신 ‘상식, 의견, 경향성’을 대입한다면, 아테네의 상황을 좀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민주정의 아테네 시민들은 두 차례의 페르시아 침략을 막아내면서 정치적 힘을 향유하게 되었다. 전쟁의 전리품, 델로스 동맹의 금고, 은광의 발견 등으로 아테네가 누린 유래없는 부는, 부의 양극화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29 R. B. Williams (2014), “Anti-Intellectualism and the “Dumbing Down” of America,” *Psychology Today*에서 재인용.

만, 일반 서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 놓았다. 시민들은 의회에서, 법정에서도 발언권과 투표권을 얻었고, 아테네 입법, 사법, 행정에도 제비뽑기를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표를 통해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경험은 대중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지적 엘리트에게 맞설 힘을 주었다.

대중의 자신감은 수사학의 발전으로 더욱더 높아 갔다. 의회나 법정에서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자, 수사학은 대중의 무기가 되었다. 소피스트들의 역할이 컸다. 인식론적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는 시민 각자의 판단과 발언이 그 나름의 무게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 주었다. 고르기아스는 파르메니데스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이고 영원불변하게 ‘있는 것’(to on, einai)은 없고, 그런 것이 있다 해도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말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에 따르면, 각자가 느끼고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을 자신의 언어로 내놓는 것은 정당하다. 절대적인 존재와 인식의 검열에 걸릴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프로타고라스의 말대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또는 개인이) 만물의 척도”가 될 뿐이다. 이제 누구라도 주눅 들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민주정의 시민들에게 생긴 것이다.

이런 민주적 상황 속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는 자가 ‘진실·진리’로 통할 수 있게 되자, 설득의 기술로서의 수사학은 각광받게 되었다. 수사학은 변화무쌍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시의적절한 의견을 구성하고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공감과 동의를 얻어 내는 언어적 도구다. 수사학이 통하는 민주정의 분위기 속에서 영원불변하며 보편적인 존재(to on), 본질(ousia), 진리(alethēia), 객관적인 인식, 앎, 지식(epistēmē)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낮설고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수사학이 전제하는 변화무쌍한 현실의 세계와 연설가들이 추구하는 시의적절한 의견(doxa)은 지성에 반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다시 말해, 민주정의 정치적 조건은 현상의 세계에 불과하고, 수사학이 추구하는 의견은 아무리 시의적절하고 실리를 보

장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진리 값을 갖지 못하는 불안정한 것이며, 또 다른 시공간의 조건 속으로 옮겨 갔을 때는 그 실효성조차 불확실하고 심지어 폐기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은 그리스 고전기 아테네의 지성주의를 대표한다. 그는 대중에 아첨하는 수사학을 참된 기술(*tekhnē*)이나 지식(*epistēmē*)으로 보지 않았다. 현상 세계에 대한 감각적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이성과 지성(*nous*)으로만 존재의 참모습(*idea*)을 바라볼 때, 영원불변하며 보편적인 존재에 대한 참된 인식과 지식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국가』에서 보여 주었듯, 이성이 뛰어난 철학자가 공동체를 다스리는 철인정치를 추구한 것 역시 지성주의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대중을 선동하는 연설가가 여론을 장악하고 국정을 주도하는 민주정은 위험하고 저급하다고 비판했다. 그에게 아테네 민주정에서 득세하고 활개 치는 수사학은 반지성주의적 행태로 보였음이 분명하다. 수사학의 토대가 되는 철학은 상대주의 또는 회의주의였으며, 그것은 지성에 대한 회의와 의심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대 최고의 수사학 교사로 명망이 높았던 이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지성주의를 반대하는 일종의 반지성주의적 입장이었다. 그는 인간의 말과 행동, 정치적인 삶의 영역에서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는 공부를 철학(*philosophia*)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³⁰ 참된 철학, 즉 지혜에 대한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의견’의 추구에서 성립한다고 믿었으며, 대중의 능력에 신뢰를 보냈던 것이다.³¹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소크라테스

30 이소크라테스의 『안티도시스』 266.

31 이소크라테스의 『안티도시스』 271. “저는 그것들에 관해서는 간단히 판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말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가져야 하는 그런 지식(*epistēmē*)을 얻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것들을 근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의견(*doxa*)에 의해 대부분의 경우에 더 좋은 것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sophos*)이며, 그와 같은 현명함(*phronēsis*)을 가장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들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철학자(*philosophos*)라고 생각합니다.”

의 ‘플라톤 비판’은 반지성주의의 양상을 보이지만, 그것이 ‘지혜’를 전적으로 불신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지성에 따른 지식은 정치적 현실 안에서 검증될 때만 유효하며, 지성주의도 대중적 설득력을 지니는 한에서만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는 오직 지성에 의해 지성주의적 절차를 따를 때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플라톤식 지성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반지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이소크라테스가 지성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불신하고 반대한다는 뜻에서 반지성주의자인 것은 아니며, 따라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지성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는 지성의 유용성과 그 한계를 동시에 인정했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은 대중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의견이며, 그 의견을 소통하면서 사회적 일체감(identity)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가 보여 준 반지성주의는 민주정을 위협하는 요소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정의 핵심이며 민주정을 지켜 나가는 힘으로 평가될 수 있다.

3.4. 고전기 아테네 희극의 반지성주의

고전기 아테네의 반지성주의의 표적이 되었던 대표적 인물은 소크라테스였다. 그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아테네에 친 스파르타 계열의 30인 참주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에 가담했던 크리티아스가 소크라테스를 겨냥해 제출했던 법안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말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logôn teknnēn didaskein)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 법률이 급진적 민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소송들과 이를 통해 득세했던 소송꾼들(sukophantēs)과 소피스트들, 그리고 그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수사학을 겨냥한 것도 있지만, 소크라테스와 그의 철학적 대화법과 변증술(dialektikē)도 그에 못지않은 표적이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크리티아스 앞에 끌려갔고,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질문

하는 ‘아이러니’(eirōn)를 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³² 그런데 크리티아스가 당대 최고 지성인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에 대해 반지성주의적 반감을 가졌다는 것, 즉 지성인의 반지성주의적인 행동은 대단히 역설적이다.³³

소크라테스에 대한 반감이 가장 길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이다. 아리스토파네스가 그에게 표현한 반감과 조롱과 풍자는 반지성주의적 현상이며, 이 또한 한 지성인이 또 다른 지성인에 가한 반지성주의적 혐오와 공격이라는 역설적인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작품은 기원전 423년의 대 디오닉소스 제전의 희극경연대회에 출품되었다. 그때 우승은 크라티노스의 『포도주 병』(Putinē)에 돌아갔고,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은 아메입시아스의 『코노스』에 이어 3등이었다. 그런데 아메입시아스의 작품도 소크라테스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작품명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코노스는 올림피아 제전에서 입상한 튀라 연주자요 가수였다.³⁴ ‘사색가들(phrontistiai)의 합창단’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에 소크라테스의 모습도 끼어 있다. 거지꼴에 자부심은 높은 ‘사색가’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A: 소크라테스, 소수의 사람들과 있을 때는 훌륭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바보스러운 그대,
우리 앞으로 와 보시겠소? 그대는 정말 모진데, 어디서 그런 외투가

32 크세노폰, 『메모라빌리아』 1.2. 33-37.

33 올딩(G. G. Olding)은 그리스 고전기 아테네에서 나타난 반지성주의 현상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했는데, 특히 아테네의 반지성주의를 주도한 사람들이 크리티아스와 같이 지성적인 사람들이라는 데에 각별한 흥미를 갖고 이에 주목했다. G. G. Olding (2002), "Anti-intellectualism in Classical Athens," University of Adelaide, South Australia.

34 코노스는 당대 희극작가들에게 소피스트적인 성격을 가진 구태의연하고 방탕한 인물로 그려지곤 했다. ‘코노스 같은 생각’(Konnophrosia)은 ‘바보 같다’는 뜻이었고, ‘코노스의 투표’는 ‘쓸데없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Olding (2002), p. 50.

그대에게 생길 수 있지?

...

그대의 그 못난 맨발은 구두를 만드는 무두장이들에겐 모욕이 되는
것이지.

B: 이 사람은 정말이지 어쨌든 굶으면 굶었지, 참는 법이 결단코 없지,
아침하는 걸.

아메입시토스의 '소크라테스'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대신 거지같이
구질구질하고 배고픈 생활을 영위해 나갈 뿐이다. 그런데도 굶어죽는 한
이 있더라도 참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무슨 소신에 찬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랑거리는 말이다. 이런 누추한 모습의 소크라테스는
역사적 소크라테스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당대 지성인의 전형이
라 봐야 한다. 거지 같은 옷차림에 구질구질하고 구차하며, 병자처럼 안색
이 창백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공부'만 하고 수다스러운 논쟁이나 일삼는
모습이다. 또 다른 희극작가 에우폴리스의 단편에서도 소크라테스는 거지
꼴로 묘사되는데, 그 원인이 명백하다. "혐오하지 나는 소크라테스를, 그 거
지 같은 수다쟁이를,/ 그는 말이야, 다른 건 다 골똥히 생각하면서도,/ 어디
서 먹을 것을 얻을지, 그건 싹 무시한단 말이지."

아리스토파네스의 또 다른 희극 『개구리』의 합창단 노래에서도 소크라
테스의 지적 대화는 무익한 수다로 표현된다.

기쁘구나, 소크라테스 옆에 앉아

수다를 떨지 않으니,

비극의 기술에서

음악과 가장 위대한 유산들을

벗기지 않으니.

철회하는 천박한 말로

www.kci.go.kr

수다를 떨며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 나간 자들의 몫이라네.³⁵

소크라테스는 당대 희극작가들에게 풍자와 조롱,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가 지금은 물론이고 당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목받던 대표적 지성인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소크라테스에 대한 희극작가들의 조롱은 개인을 넘어서, 그로 대표되는 당대 지식인들 전체에 대한 반감이며 반지성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희극작품 속에서 지성인은 세상물정 모르는 무능한 게으름뱅이로 그려진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지식과 방법, 도구와 장비에 대한 자신감에 부풀어 대중을 무시하는 거만한 모습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한편,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지성인들을 그럴 때, 당대 새롭게 만들어져 대중 사이에 화제가 되었던 과학적인 도구와 장비들, 책, 새로운 조어, 수사학적 기교 등을 전형적인 상징물로서 지식인들에게 갖다 붙여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³⁶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리스토파네스는 당대 지성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성인들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성적 연구를 과시하면서 대중에 대한 지적 우월성을 내세우며,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논리를 구성하는 데에 논변의 능력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리스토파네스가 지성적 절차가 사물을 탐구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고, 그런 힘이 있음을 전적으로 부인하진 않는

35 아리스토파네스, 『개구리』 1491-1498행.

36 아리스토파네스는 비극시인 에우리피데스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개구리』에서 에우리피데스는 시를 짓는 데에 각도기나 삼각자 등과 같은 첨단도구를 동원한다. 비극을 평가하기 위해 제물의 무게를 달듯이 비극의 무게를 달려고 하고, 말(시어)을 자로 재고 벽돌 틀까지 동원한다. 목수나 건축가가 집을 짓듯, 에우리피데스는 첨단 공학 기술과 기계, 장비를 동원하여 시를 짓는 모습으로 묘사된다(800-804).

다. 그런 점에서 그에게도 모종의 지성주의적 신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성적 능력이 지성인의 비도덕성과 결합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하며 선량한 사람을 해하며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아리스토폴라네스의 『구름』에서 소크라테스는 페이디피데스가 말(馬)을 사 모으면서 지게 된 엄청난 빚을 교묘한 논리로 탕감할 수 있는 ‘사론’(邪論)을 가르친다. 소크라테스의 능력과 교육은 그가 섬기는 ‘구름’의 신의 가호를 받는데, 구름의 신은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허의 신과 함께 상황에 따라 입장과 논리를 꾸며대는 위력을 발휘한다. 소크라테스의 학교에서는 구름과 허의 신의 가호 아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론’도 짓밟는 비도덕성이 전수된다. 작품 속 소크라테스 학교는 지성인들의 이기심과 이를 채우고 정당화하는 궤변의 교육 현장인 것이다. 소크라테스를 사사한 페이디피데스는 자신이 진 빚을 모두 갚지 않고도 채무자 앞에서 당당하며,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를 패고도 땀땀하고 이젠 어머니까지 패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나선다. 분노한 스트렙시아데스는 자식을 소크라테스의 학교에 맡긴 것을 후회하며 학교에 불을 지른다. 화재를 피해 빠져나오는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을 응징하겠다고며 쇠스랑을 들고 쫓아간다. 지성인들의 대한 대중의 분노와 반감을 무대 위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반지성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폭넓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상고기의 서사시로부터 고전기의 희극에 이르기까지 반지성주의의 양상에 좀 더 집중해 보았다. 제한된 지면에 다소 방만한 내용을 전개하다 보니, 다양한 정보 제공에 많은 노력이 기

올여지면서 논의의 밀도가 얇어진 것 같다. 그러나 지성의 인식론적인 위상과 정치적 역할을 정확하게 고찰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에서라면, 지성에 대한 불신과 반감에서부터 지성인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불신, 그리고 특정 지성주의에 대한 지성주의적 비판에 이르기까지 반지성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예비적 단계로 포괄적 접근이 필요했다.

고대 그리스 고전기의 아테네는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페리클레스의 말대로 그리스의 학교였다. 그때 성립한 그리스 지성주의는 중세를 지나 근대까지 서구 문명의 주도권을 유지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힘을 잃지 않고 있는 서구적 합리주의와 주지주의의 뿌리가 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전기 당시 아테네 대중은 물론 일부의 지식인들조차도 새롭게 부각되던 지성과 지성주의의 힘에 회의를 품었고, 지성주의가 독점적 권위를 갖는 것을 경계했으며, 지성을 수단과 무기로 삼던 지성인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반감과 혐오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당대 보여 주었던 반지성주의의 양상은 단순하지 않다. 광기에 사로잡힌 듯, 반지성주의의 시퍼런 서슬에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했고, 그 이전에 아낙사고라스와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반지성주의의 치명적인 표적이 되었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반지성주의는 지성의 한계를 직시하고 지성주의에 대한 확신을 유보하는 태도로 불신과 반감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지성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무시나 반감만은 아니었다. 이소크라테스의 교육처럼 지성의 힘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고, 진실과 진리에 이르는 보편적인 요소로 여기기도 했다. 지성인들에 대한 반감은 그것이 곧 지성과 지성주의에 대한 반감과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반지성주의는 지성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성주의의 독점적 행사를 제한하고 경계하며 대중의 상식과 소통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려 보자. 지금 우리 지성인들은 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문제를 풀기 위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학문적 성실성이 행여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대중에 대한 오만한 우월감을 감추려는 변명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학문적 논의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회하는 천박한 말로 수다를 떨며,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 나간 자들의 몫이라네.”라고 노래했던 풍자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한가? 이런 물음을 던지며 그 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또 한편으로는 대중의 반지성주의적 태도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 건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만(2019), 「왜 대중은 반지성주의에 매료되는가?: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반지성주의」, 『정치·정보연구』 제22권 1호, pp. 27-62.
- 권혁성(2018), 「“영감” 개념에 따른 플라톤의 시 이해: 『국가』의 시 논의와 일치하는 그것의 비판적 입장에 관하여」, 『미학』 제84권 1호, pp. 41-91.
- 김대중(2022), 「계란머리에서 트럼피즘까지: 미국의 반지성주의 연구」, 『인문학연구』 제63호, pp. 97-117.
- 김봉철(2012),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술과 그리스 신화」, 『서양고대사연구』 제32권, pp. 35-70.
- 김봉철(2010), 「헤로도토스와 그리스 신화 서술: 제우스 서술을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제27권, pp. 263-295.
- 김유석(2012), 「이소크라테스와 개연성의 수사학: 『에우튀누스를 반박함』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46호, pp. 511-543.
- 김현(2013), 「이소크라테스의 철학과 파이데이아에서의 의견(doxa)」, 『서양고전학연구』 제50집, pp. 73-99.
- 남상욱(2019), 「현대 일본의 ‘반지성주의’ 담론 분석」, 『일본학보』 제119호, pp. 93-110.
- 무데, 카스(2021), 권은하 역,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열 가지 키워드로 읽는 21세기 극우의 현장』, 위즈덤하우스.
- 박규철(2012), 「시는 기술인가 신적 영감인가?: 플라톤의 『이온』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와

- 이온의 논전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충남대학교) 제86권, pp. 353-380.
- 박종우(2019), 「중국의 반지성주의 맥락과 시진핑 정권」, 『중국지역연구』 제6권 제3호, pp. 135-169.
- 손태창(2022), 「아미존인들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서술: 서사의 분석을 통한 서술 의도의 해석」 『서양고대사연구』 제64권, pp. 7-40.
- 안리, 모리모토(2016), 강혜정 역, 『반지성주의: 미국이 낳은 열병의 정체』, 세종서적.
- 이경하(2021),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인문논총』 제78권 제4호, 209-235.
- 이라영(2019) 『타락한 저항: 지배하는 피해자들, 우리 안의 반지성주의』, 교유서가.
- 이상현(2021), 「포퓰리즘과 반지성주의: 라틴아메리카의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제40권 1호, pp. 69-96.
- 이영주·유재봉(2012), 「프로네시스로서의 수사학 가능성 탐색: 이소크라테스의 관점」, 『교육철학연구』 제43권 제2호, pp. 149-167.
- 이혜경(2022), 「근대성에 대한 대항으로서 신종교, 거기에 스며든 반지성주의」, 『인문논총』 제79권 2호, pp. 125-154.
- 정강길(2015), 「초자연주의 신앙에 대한 재고찰과 대안적인 신앙 모델 모색: 한국개신교의 반지성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제25호, pp. 69-102.
- 제이코버, 수전(2020), 박광호 역, 『반지성주의 시대: 거짓에 빠진 미국, 건국기에서 트럼프까지』, 오월의 봄.
- 최형목(1998), 「한국교회 반지성주의의 뿌리」,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338호, 4-5.
- 한기철(2018), 「두 가지 지식과 두 가지 교육: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 『교육철학연구』 제40권 제3호, pp. 171-200.
- 한상원(2018), 「아도르노와 반지성주의에 관한 성찰: 민주주의와 지성의 상관성 물음」, 『철학』 제135집, pp. 23-46.
- 호프스태터, 리처드(2017), 유강은 역, 『미국의 반지성주의』, 교유서가.
- Cornford, F. M. (1912), *From Religion to Philosophy: A Study in the Origins of Western Speculation*, New York.
- Franke, W. (2011), "Homer's Musings and the Divine Muse: Epic Song as Invention and as Revelation," *Religion & Literature* 43(1), pp. 1-28 참조.
- Green, P. (1979), "Strepsiades, Socrates and the Abuses of Intellectualism,"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20(1), pp. 15-25.
- Habash, N. L. (2017), "Lack of Technē and the Instability of Poetry in Plato's *Ion*," *Classical World* 110(4), pp. 491-521.
- Heidegger, M. (1956), *Was ist das: Die Philosophie?*
- Holman, C. H. 1980 (4th ed.), *A Handbook to Literature: Based on the Original Edition by William Flint Thrall and Addison Hibbard*, Indianapolis: Bobbs-Merrill Education Pub., p. 27.
- Jacoby, S. (2008), "The Dumbing Of America," *Washington Post* 2. 17.

- Macé, A. (2011), "Une Science Athénienne de la nature. La promesse et le testament d'Anaxagore," *Méthexis* 24, pp. 21-43.
- Mansfeld, J. (1979), "The Chronology of Anaxagoras' Athenian Period and the Date of His Trial," *Mnemosyne* 32, pp. 39-69.
- Minchin, E. (1995), "The Poet Appeals to His Muse: Homeric Invocations in the Context of Epic Performance," *The Classical Journal* 91(1), pp. 25-33.
- Mordine, M. J. (2006), "Speaking to Kings: Hesiod's 'Ainoi' and the Rhetoric of Allusion in the 'Works and Days'," *Classical Quarterly* 56(2), pp. 363-373.
- Nagy, G. (2018), "A Re-invocation of the Muse for the Homeric Iliad," *Classical Inquiries*, http://nrs.harvard.edu/urn-3:hul.eresource:Classical_Inquiries (접속일: 2022.10.1.)
- Nestle, W. (1940), *Vom Mythos zum Logos. Die des griechischen Denkens Selbstentfaltung Homer bis auf die von und Sokrates Sophistik*, Stuttgart.
- Olding, G. G. (2002), "Anti-intellectualism in Classical Athens," University of Adelaide, South Australia.
- Tarrant, H. (2008), "The Dramatic Background of the Arguments with Callicles, Euripides' Antiope, and an Athenian Anti-Intellectual Argument," *Journal of the Australian Society for Classical Studies* 42, pp. 20-39.
- Vandiver, B. E. (1990), *Heroes in Herodotus: The Interaction of Myth and History*,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 Walker, J. (1996), "Before the Beginnings of "Poetry" and "Rhetoric": Hesiod on Eloquence," *Rhetorica* 14(3), pp. 243-264.
- Weber, M. (1978), ed. & tr. G. Roth and C. Wittich, *Economy and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nd ed.).
- White, M. (1962), "Reflections on Anti-intellectualism," *Daedalus* 91, pp. 464-465.
- Williams, R. B. (2014), "Anti-Intellectualism and the "Dumbing Down" of America," *Psychology Today*.
- Williams, B. (2001), "What Was Wrong with Minos? Thucydides and Historical Time", *Representations* Vol. 74(1), pp. 1-18.
- Woodbury, L. (1981), "Anaxagoras and Athens," *Poenix* 35(4), pp. 295-315.
-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2022.5.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469>(접속일: 2022.10.1.)
-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49d6802dde04c7e9add42359fc2070f>(접속일: 2021.10.31.)
-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informatisé*, sur le site du CNRTL. <https://www.cnrtl.fr/definition/anti-intellectualisme>(접속일: 2021.10.27.)

Dictionnaire Larousse, “anti-intellectualisme”.

『서울신문』 2021년 7월 29일자, “테러 위협·해고 압박 받는 파우치… ‘미 방역 잘못되고 있어’”<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30020014>(접속일: 2021.7.30.)

원고 접수일: 2022년 10월 10일, 심사 완료일: 2022년 11월 5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8일

ABSTRACT

A Study on Anti-Intellectualism in Ancient Greece

Kim, Heon*

In his inaugural address, President Yoon Seok-yeol pointed out that anti-intellectualism is the cause of various problems in our society and puts democracy into a crisis, and emphasized the need for the recovery of rationalism and intellectualism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However, anti-intellectualism is not only a negative attitude against the intellect and rationality, but also may be understood as a positive effort to acknowledge the imperfection of the intellect, guard against the arrogant self-righteousness of intellectuals and the hypocrisy of distorted selfishness, and ensure healthy communication of diverse opinions. The ancient Greek epic tradition seems to have regarded divine inspiration and intuition as more credible epistemological grounds than human experience and knowledge. Democracy, which began in Athens at the end of the 6th century BC, created a social atmosphere in which the sound common sense and opinions of the general public were more reliable than the intellectual authority of a small elite group. The rhetoric, which seeks to construct a timely opin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persuade the public rather than search for absolute and universal knowledge, played a major role in creating such an atmosphere. Greek old comedy also staged accusations of the self-righteous authority,

—

*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ypocrisy, and incompetence of some intellectuals. As such, the so-called 'anti-intellectualism' in ancient Greece had a positive aspect that could not be defined only by negative evaluation, and it can be said that it contributed to the maturation of Athens' own democracy.

Keywords Anti-intellectualism, Intelligence, Philosophy, History, Rhetoric, Democracy, Ancient Greece, Classical Athens

